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호 【루게 제22955호】주제99(2010)년 1월 3일(일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올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총공세를 벌려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평양 1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고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할데 대한 당보, 군보, 청년보의 새해공동사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2일 김일성광장에서는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가 진행되었다.

광장은 혁명적대고조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인민의 찬탄가치에 찬사를 꾀하기 위한 우리 당의 위업의 정당성을 남김없이 과시할 드높은 혁명적열정을 안고 모은 수도의 10만여명 군중들로 차고넘쳤다.

대회장관가운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다.

대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대변력의 해》, 《4대선행부분》, 《성강의 본래》, 《최첨단 돌파》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세워져있다.

김영일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와 로동청 내각부총리,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꾼들, 평양시당, 정권, 경제기관 책임일꾼들, 대학총장들,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최영림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지난해는 조국청사에 특기할 변이 난 해,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가 펼쳐진 국적인 전환의 해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우리 혁명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국면을 열어놓을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150일전투, 100일전투를 발기하시었을뿐아니라 그 승리를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혁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승고한 애국애민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온 한해동안 들끓는 대고조격전투들로서 조강조의 강령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무비의 공적정신은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폭발시키고 도처에서 세상을 들뜨게하는 기적들이 창조되게 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국방위에 전례없는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주신 위대한 선군혁명기의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인민의 찬탄가치에 찬사를 꾀하기 위한 우리 당의 위업의 정당성을 남김없이 과시할 드높은 혁명적열정을 안고 모은 수도의 10만여명 군중들로 차고넘쳤다.

대회장관가운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다.

대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대변력의 해》, 《4대선행부분》, 《성강의 본래》, 《최첨단 돌파》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세워져있다.

김영일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와 로동청 내각부총리,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꾼들, 평양시당, 정권, 경제기관 책임일꾼들, 대학총장들,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최영림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지난해는 조국청사에 특기할 변이 난 해,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가 펼쳐진 국적인 전환의 해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우리 혁명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국면을 열어놓을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150일전투, 100일전투를 발기하시었을뿐아니라 그 승리를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여 민족의 존엄을 세상에 높이 떨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입니다.》

보고자는 수도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생활향상에 총력을 집중하여 인민을 위하는 우리 당의 승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근시기 수많은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갖가지 질 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틀어쥐고 알곡정보고 수확량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남생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한편 모두가 농사에 필요한 영농설비와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농촌을 적극 지원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현대적인 축산, 양어, 과일 생산기지의 능력을 확장하고 인민들이 하루빨리 그 덕을 볼 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정책들과 당의 은정어린 조치들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인민경제전행부분, 기초공업부문에서는 수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전기와 석탄, 원료와 자재들을 제때에 충분히 생산보장하며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내밀고 도시경영사를 힘있게 벌리며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과학기술, 교육, 문학에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며 군사증시기공을 확고히 세우고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든든히 준비하며 조선민족의 영웅적기상과 본래를 과시하는 위훈의 창조자, 열렬한 애국자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당의 혁명적공로훈장을 철저히 관철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철결같이 묶여세우며 화산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켜 수도안에 총돌격전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토론한 평양방직공장 지배인 민일홍은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과 인민에 대한 승고한 사랑이 맥박치는 새해공동사설을 받아들인 전체 로동자들은 크나큰 격정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을 일터에 모시고 최상최대의 민음과 영광을 받아안은 평양방직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올해에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틀러서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과학기술, 교육, 문학에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며 군사증시기공을 확고히 세우고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든든히 준비하며 조선민족의 영웅적기상과 본래를 과시하는 위훈의 창조자, 열렬한 애국자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당의 혁명적공로훈장을 철저히 관철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철결같이 묶여세우며 화산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켜 수도안에 총돌격전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토론한 평양방직공장 지배인 민일홍은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과 인민에 대한 승고한 사랑이 맥박치는 새해공동사설을 받아들인 전체 로동자들은 크나큰 격정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을 일터에 모시고 최상최대의 민음과 영광을 받아안은 평양방직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올해에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틀러서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과학기술, 교육, 문학에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며 군사증시기공을 확고히 세우고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든든히 준비하며 조선민족의 영웅적기상과 본래를 과시하는 위훈의 창조자, 열렬한 애국자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당의 혁명적공로훈장을 철저히 관철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철결같이 묶여세우며 화산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켜 수도안에 총돌격전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토론한 평양방직공장 지배인 민일홍은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과 인민에 대한 승고한 사랑이 맥박치는 새해공동사설을 받아들인 전체 로동자들은 크나큰 격정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을 일터에 모시고 최상최대의 민음과 영광을 받아안은 평양방직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올해에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틀러서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과학기술, 교육, 문학에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며 군사증시기공을 확고히 세우고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든든히 준비하며 조선민족의 영웅적기상과 본래를 과시하는 위훈의 창조자, 열렬한 애국자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당의 혁명적공로훈장을 철저히 관철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철결같이 묶여세우며 화산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켜 수도안에 총돌격전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토론한 평양방직공장 지배인 민일홍은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과 인민에 대한 승고한 사랑이 맥박치는 새해공동사설을 받아들인 전체 로동자들은 크나큰 격정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을 일터에 모시고 최상최대의 민음과 영광을 받아안은 평양방직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올해에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틀러서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과학기술, 교육, 문학에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며 군사증시기공을 확고히 세우고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든든히 준비하며 조선민족의 영웅적기상과 본래를 과시하는 위훈의 창조자, 열렬한 애국자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당의 혁명적공로훈장을 철저히 관철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철결같이 묶여세우며 화산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켜 수도안에 총돌격전의 열풍이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장

대고조의 기상 더높이 떨치며

올해공동사설에 접한 일꾼들의 드높은 결의

새해공동사설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군중병들은 끝없이 격동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기수, 주력군단개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에서 선도자적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는 공동사설의 자거구리를 새겨보면서 지금 우리 인민군중병들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 떨치며

세해의 총진군, 총공세에서 다시금 전투적기상과 위력을 떨쳐갈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총공세를 벌려야 하는 이해에 내세우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강성대국건설의 돌격대,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을 바라신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절대적인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새해 총공경전에서도 선군혁명의 기수, 주력군으로서의 위용을 높이 떨쳐가겠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오중총 7련대청호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모든 군인들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그대로 닮은 선군혁명의 전위투사, 수령옹위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육탄격사대로 키워나가겠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 명령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칭찬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사상을

천만산악도 띠옴길 불라는 열정을 안고

세해대 선군혁명동이 되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의 두리에 철결같이 뿜시며 당과 운명을 같이해나가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조국해방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입심단결하여 천만산악도 강성대국건설대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재대로는 무엇이 이 심장에 뜨겁게 안겨오나.

지금 우리 전체 청년들은 무한대의 전력과 불멸불후의 명도로 우리 조국과 혁명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뜨거운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타는 충정과 영웅적위훈으로 당의 위업을 끝까지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청년들은 우리 당과 사상도 뜻도 정도 같이하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담보하는 굳건한 밀뿌리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

장재가 나와야 쌀도 나옵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에 철강제철 산에서 다시한번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겠다.

당창건 65돐을 로력적성 파괴 빛내기 위하여 일꾼들 모두가 전진의 나팔수가 되어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전투장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경제조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 떨치며

세해의 총진군, 총공세에서 다시금 전투적기상과 위력을 떨쳐갈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총공세를 벌려야 하는 이해에 내세우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강성대국건설의 돌격대,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을 바라신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절대적인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새해 총공경전에서도 선군혁명의 기수, 주력군으로서의 위용을 높이 떨쳐가겠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오중총 7련대청호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모든 군인들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그대로 닮은 선군혁명의 전위투사, 수령옹위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육탄격사대로 키워나가겠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 명령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칭찬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사상을

천만산악도 띠옴길 불라는 열정을 안고

세해대 선군혁명동이 되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의 두리에 철결같이 뿜시며 당과 운명을 같이해나가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조국해방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입심단결하여 천만산악도 강성대국건설대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재대로는 무엇이 이 심장에 뜨겁게 안겨오나.

지금 우리 전체 청년들은 무한대의 전력과 불멸불후의 명도로 우리 조국과 혁명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뜨거운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타는 충정과 영웅적위훈으로 당의 위업을 끝까지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청년들은 우리 당과 사상도 뜻도 정도 같이하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 떨치며

세해의 총진군, 총공세에서 다시금 전투적기상과 위력을 떨쳐갈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총공세를 벌려야 하는 이해에 내세우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강성대국건설의 돌격대,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을 바라신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절대적인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새해 총공경전에서도 선군혁명의 기수, 주력군으로서의 위용을 높이 떨쳐가겠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오중총 7련대청호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모든 군인들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그대로 닮은 선군혁명의 전위투사, 수령옹위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육탄격사대로 키워나가겠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 명령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칭찬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사상을

천만산악도 띠옴길 불라는 열정을 안고

세해대 선군혁명동이 되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의 두리에 철결같이 뿜시며 당과 운명을 같이해나가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조국해방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입심단결하여 천만산악도 강성대국건설대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재대로는 무엇이 이 심장에 뜨겁게 안겨오나.

지금 우리 전체 청년들은 무한대의 전력과 불멸불후의 명도로 우리 조국과 혁명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뜨거운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타는 충정과 영웅적위훈으로 당의 위업을 끝까지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청년들은 우리 당과 사상도 뜻도 정도 같이하는

주 체 9 9 (2 0 1 0) 년 새 해 를 축 하 하 여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정 일 각 하**

나는 새해 2010년을 맞으며 각하게 총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바랍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에집트아랍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드 후스니 무바라크
2009년 12월 24일 까하라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김 정 일 원 수 각 하**

나는 새해 2010년에 즈음하여 전제 민주공화국인민과 정부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과 아울러 번영을 이룩하시길 축원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새해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큰 평화와 행복, 기쁨을 가져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당신께 우리 두 나라를 연결하는 친선 협조의 뉴대를 더욱 강화할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바입니다. 위원장각하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공공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조제프 까빌라 까방게
2009년 12월 24일 킨샤사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김 정 일 통 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새해 2010년을 맞으며 당신께 저 자신과 우리 당내 동지들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인 민 의 위 대 한 령 도 자 이 신 **김 정 일 통 지**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인 민 의 위 대 한 령 도 자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새해 2010년을 맞으며 세계인민들은 자기 조국의 행복과 번영, 무엇보다도 민족의 평화와 복리문제와 같은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밀접한 호상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께서와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이 물질 및 정신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진보를 이룩하시길과 귀국에 평화와 안정, 행복과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저는 새해 2010년이 로써아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쌍무관계에서 성과적인 해로 되며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적인 친선이 새로운 결실을 가져오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로씨야러방련방회의 국가회의 부의장 로씨야자유민주당 위원장 웨. 웨. 쥐리놉스키
2009년 12월 17일 모스크바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김 정 일 통 지**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들의 이름으로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새해가 각하게와 그리고 영웅적조선인민에게 평화와 친선, 승리의 해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란 정당들의 집 중앙리사회 위원장 호제인 카웨피
2009년 12월 23일 테헤란

평 양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평 양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조 선 인 민 의 령 도 자 김 정 일 통 지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정 일 각 하**

나는 새해 2010년을 맞으며 각하게 총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바랍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로씨야러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게. 아. 쥬가노브
2009년 12월 25일 모스크바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정 일 각 하**

나는 새해 2010년에 즈음하여 전제 민주공화국인민과 정부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과 아울러 번영을 이룩하시길 축원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새해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큰 평화와 행복, 기쁨을 가져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당신께 우리 두 나라를 연결하는 친선 협조의 뉴대를 더욱 강화할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바입니다. 위원장각하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따라배우고있다. —백두산일영혁명전적지에서— 본기자 리원 국 특음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표식비가 여러 단위에 건립되었다. 평산군인민보안사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안인들이 사회질서유지와 국토관리사업을 잘하며 혁명의 진취물을 튼튼히 보위함에 대하여 가르쳐주신 뜻깊은 장소에 혁명사적표식비를 일떠세웠다. 강계시 은정협동농장에서 건립된 혁명사적표식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새를 많이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하여 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훈군 자작협동농장을 찾았으며 알곡생산원을 일으켜 축산을 발전시키고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다각정리를 발전시키고 마을을 잘 꾸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신 사적내용이 갖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훈군 자작협동농장을 찾았으며 알곡생산원을 일으켜 축산을 발전시키고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과 함께 문화주택을 건설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사적내용을 담은 혁명사적표식비가 이곳에 세워졌다. 장강, 강계식료공장에서 세워진 혁명사적표식비들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원료보장대책을 세워 식료품과 어린이식료품생산을 늘이며 제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표식비 여러 단위에 건립

몇해진 어느날 인민군대의 한 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사강실에 들리시어 부대의 일부수행과 훈련정형을 료해하시었다. 부대에서 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지휘관들을 높은 전투능력과 전투기술을 소유한 용사들로 키우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신 것이어서는 부대에서 전투정치훈련을 드세게 벌리며 모든 훈련을 과학화하여 일당백의 전투력을 극대화하여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부대의 전투기술기풍을 돌아보시었다.

선군혁명령도의 나날에

주제 96 (2007)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한 부대를 찾았으셨을 때의 일이다. 부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전투준비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사상교양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셨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대에서 군인교양에 필요한 각종 수단들을 훌륭히 갖추어놓고 정치사업을 참신하고 심도있게 진행하였으며 모든 군인들을 투철한 혁명관을 지닌 사상의 강군으로 키우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었다.

령도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

령대표범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탄부들속에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우선 당 세상공동사설을 받아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당장건 65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혁명적대오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파급한 총공세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강성대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나아가는 선군조성의 백승의 기상이 세계에 약동하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교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발표하신 18돛을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81 (1992)년 1월 3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우리 시대 사회주의 위업실현의 진로를 밝히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한 기념비적문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회주의위업은 위대한 조종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위업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서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역사발전의 법칙입니다.》 인류의 리상과 미래는 사회주의에 있으며 사회주의가 승리하는것은 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이다. 사회주의가 진전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지만 인류가 사회주의에서 나아가는 력사발전의 법칙은 달라질수 없다. 사회주의는 인민의 지향이고 의의이기에 반드시 승리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일부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을 명철하게 분석하시고 사회주의의 승리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었다. 혁명의 주제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임에 대한 문제, 혁명과 건설에서 사회주의 근본원칙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 등 로작에 제시된 모든 사상이론들은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대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고무적기초로 되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승리가 있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교난의 행군》 강행군시에 최악의 시련을 이겨내며 사회주의를 결사적으로 수호하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할수 있는것은 주제의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인민대중의 혁명적 령도자 김정은의 교전적로작을 따라 하고있는 우리의 리상이 실현되는 회한한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 사회주의조선은 혁명적대오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며 강성대국에로 비약해나가는 격동적인 시대를 맞이하였다. 당을 따라 간고한 시련을 헤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복을 마음

떨어뜨렸기때문이다. 자주성의 궤도를 향하여 우리는 빛나는 미래가 있다. 오늘 우리 조국은 백두의 선군혁명령도의 위업을 펼치며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지난해에 150일전투와 1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져 조국평화에 특기할 만한 이치가 된것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이 땅우에 주제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의 파시로 된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우주로 날아오르고 우리의 CNC기술이 세계의 첨단 기술을 확고히 돌파하였으며 주제철행력 완성을 위하여는 불퇴하여 지난날 대고조전투에서 기록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적신념을 담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짐벌 못할 요새가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우리의 자주적대는 진리며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강성대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전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영원한 자주성의 강군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천만군민의 일상생활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혁명의 부류이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이며 하나로 통일된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이다. 일일생활,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위력이다.

이끌어주고 천만군민은 령도자를 정치사상적으로, 믿음으로 결사옹위하며 대고조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서 바로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다. 선군조선의 이런 일일생활의 대진군속에서 새로운 철기마속도, 《희천속도》가 창조될수 있었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세상을 들었다놓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다. 일일생활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미래는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무적의 총대를 기둥으로 하여 백승을 펼쳐나가는 금성철벽의 요새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군력, 총대가 강해야 한다. 총대가 약하면 나라도 민족도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없다. 강력한 총대에우에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다. 우리의 혁명은 총대로 개척되고 총대의 위력으로 승리를 펼쳐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중시사상을 빛나게 계승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반세기에 걸치는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군사정책을 철기마속도로 내세우시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총대로 믿음직하게 담보해오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차례 선군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의 총포탄대오,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군으로 강화발전되고 우리 조국평우에는 강력한 군력에 의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리 강 철

올해 총공세의 진격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천만군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끊임없이 고조시켜야 한다.

(공동사에서)

《송풍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새해공동사설을 격동된 심정속에 받아안은 2.8직동 청년탄광의 일군들과 당원들, 노동자들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서 질투같이 내달려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자신만만한 투지를 안고 새해 첫걸음을 큼직이 내걸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의 어깨 위에 대고 조의 운명이 놓여있습니다.》 새해전군위에 나선 이로부터 8월 경에는 장군님께서 탄광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과 새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불같은 열의로 불꽃이 솟아올라...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대중의

2.8 직동 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정신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한 화신적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려나갔고있다.
방송선전차에서 울려오르는 방송원의 열기면 목소리와 기둥에 울선동대원들이 펼쳐보이는 힘있는 경제선동이 전투장마에서 비약의 폭풍이 일어번지게 하고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라는 당의 구호와 《결사관철》, 《자력갱생》 등 표어들은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결사관철의 의지를 더해주었다. 혁신의 새 소식을 담은 속보들과 쪽쪽 뻗어올라간 경쟁도표들은 새해 첫 전투에 들어선 노동자들을 새로운 위훈과 기적창조로 고무해준다. 대중의 정신력을 활성화처럼 분출시키자면 당일군들이 힘

《송풍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지를 안고 초급당비서 리동철동무는 12명 체반 3중대 막장에 들어가 탄부들과 함께 밤을 새워 일하였다.
월감이 되자 그는 지난해 탄광을 찾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광을 굴지의 석탄생산기지로 전전시키기에서 나서는 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장군님의 현지말씀과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관철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젖히자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은 대중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채탄공들은 계획을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2.8 직동청년탄광의 로동계급이라고 멋있이 말할수 없다고 하면서 한시간을 열시간, 하루를 열흘맞잡이로 여기면서 뛰고 또 뛰었다. 한당의 석

탄이라도 더 캐내기 위한 결사전이 벌어졌다.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정신이 높고 발휘되는 가운데 이들은 하루 석탄생산실적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우는 자랑을 떨쳐냈다. 당시 제시한 석탄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결사관철의 의지로 온 탄광이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속에 탄광에서는 새해 첫날 전투목표수행에서 눈부신 혁신을 창조하는 위훈을 떨쳤다.
거대한 《송풍기》가 되어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의 뒷바람을 일으켜나가는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모습은 동발나무생선 전투장에도 진하게 새겨져있다. 수습리 떨어진 탄광까지 동발나무를 끌어내려와야 하는 전투는 힘겨웠다.
탄광안의 많은 사람들이 전투에 참가하는 조건에 맞게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산판에서

화신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특히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직접 방송마이크를 잡고 구호도 웨치고 시도 읊으면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은 볼수록 미더웠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드높은 실천적 성과로 기어 올라 보답하자. -평양의 불빛을 우리가 지켜가자.
이렇게 웨치며 이들은 말은 일을 두루, 세후 해제끼였다. 한마디 한마디로 산악같이 일떠선 대중의 정신력은 무서운 힘으로 폭발하여 하루동안에만도 많은 량의 동발나무를 끌어내리는 놀라운 혁신이 창조되게 하였다.
《송풍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나갈 때 높은 생산실적을 낼수 있다는것을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내걸은 새해 첫 걸음이 다시금 확충해주고 있다.

첫 전투부터 잠도리를 다다라

사리원시 미곡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사리원시 미곡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새해 잠도리가 인상적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올은 방법론을 세우는것은 어떤 사업에서나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첫 전투를 시작할 때 리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 내용을 깊이 새겨보는 것으로부터 일정을 잡곤 하였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와 병행하여 농장에 깃들여있는 어머니 수령님과 과격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다짐을 가슴에 새겨주어 주고 있는 것으로 특색있게 첫걸음을 떼었다.
리당위원회사업계획에 따라 새해공동사설이 실현 《로동신문》과 함께 농장에 어머니 수령님과 과격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으로 각 작업반들에 달려나간 농장의 일군들은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위한 과격으로 전

는 전투현장에서 농장원들과 일손을 같이하면서 명도업적교양사업을 화신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갔다.
리소제에서 면복에 위치하고있는 농산제 10작업반을 맡고 나간 한 리당일군은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에 경공업과 농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동사설의 사상과 내용, 체계를 먼저 해설해주고나서 리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바쳐오신 어머니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업적에 대하여 뜨겁게 되새겨 주었다. 다른 작업반들에 나간 일군들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들과 밀접히 결부하여 어머니수령님의 유훈 관철과 관계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을 위한 선동사업들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려나갔다.
리당위원회가 새해의 총공세가 벌어지는 첫 출발선에서부터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한 고리로서 명도업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게 된다는 까닭이 있었다.
지난해에 리당위원회는 알곡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영농전투과정을 농장에 어려있는 어머니수령님과 과격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으로 각 작업반들에 달려나간 농장의 일군들은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위한 과격으로 전

한시간의 모든 선전선동의 화력을 여기에 집중하였다. 지난해 10월 농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커다란 기쁨을 드린것처럼 농장이 생겨 처음 보는 최고생산년도수준이 돌파되게 된것은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명도업적교양을 심화시켜나갈 때 얼마나 큰 위력이 나타나게 되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었다.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어려있는 영광의 고장에서 살며 일하는 궁지를 안고있는 우리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년초부터 한껏 폭발시키자!
이렇게 마음먹고 리당위원회 일군들이 전개해나가는 명도업적교양사업들은 곧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었다.
한겨울의 짙은 추위속에서도 농장원들은 자기 고장에 새겨진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더듬어보며 불이 번져 나게 일손을 다그쳤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그날 하루동안에라도 짙은 거름을 천이어나 포전에 실어내는 놀라운 혁신성공과를 거두었다.
이곳 리당위원회가 어머니수령님과 과격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교양으로 첫 전투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한껏 폭발시킨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본사기자 이 정 수



나라의 싹들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안고 새해농사치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명일 찍음

흥남땅에 혁신과 비약의 폭풍이 세차게 몰아치고있다.
승리의 상징인 붉은기가 세차게 휘날리고 기둥에술선동대의 힘찬 취주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스화암모니아생산공정건설전투장과 물전해직장을 비롯한 모든 전투장들에서는 과감한 돌격전진, 창조적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낯선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대중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고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 대고조시대의 참된 지휘관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새해 첫 전투부터 질투같이 내달려온 중일군들의 앞장서서 모든

일군들이 돌격전의 《제1번수》가 되어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맞게 이곳 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대고조시대의 《제1번수》가 되어 앞세우며 메고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고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새해공동사설을 받아안은 이곳 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총진군대오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렸다.
당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일군들이 공동사설을 자자구구 따져가면서 그 진수를 깊이 파악하도록 하였다. 한편 모든 일군들이 한계 단위의 말

고 내려가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박력있게 벌리며 당원들과 중일군들을 새해 첫 전투에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첫 전투를 앞두고 어머니수령님의 동상앞에 모인 이곳 일군들과 중일군들은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임을 열고 올해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것을 결의 하면서 일제히 전투장마에 걸려나갔다.
가스화암모니아생산공정건설전투장으로 달려나간 책임비서 김태동동무를 비롯한 당위원회일군들은 함마를 들어 쥐고 전투를 벌리면서 첫 전

투에 떨어진 당원들과 중일군들을 새로운 혁신과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련합기업소 지체인, 기상장을 비롯한 행정일군들도 인민군대의 지원관처럼 생산현장에 나와서 전후조리와 지휘를 기능적으로 해나가면서 첫날전투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간다고 중일군들이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총진군대오의 《제1번수》가 되어 앞세우며 메고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일군들의 이신착적의 실천적모범은 첫 전투에 떨쳐나선 중일군들의 정신력을 세차게 분출시켰고 모든 전투장들에게 혁신과 비약의 폭풍이 일어나게 하였다.

이런 불같은 웨침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나오고 혁신과 위훈에로 부르는 기둥에술선동대의 힘찬 취주악소리가 당원들과 중일군들의 심장을 끊임없이 격동시켰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깊이 새긴 이곳 일군들과 중일군들은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새해 첫 전투에서 크큰 진취를 새기었다. 이렇듯 총진군대오의 《제1번수》가 되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이곳 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기업소의 모든 일터마다에서 혁신과 비약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송 창 운

《폭풍처럼 달리다 강성대국 향하여》, 《준마치니》... 승리에 대한 심신과 락관, 혁명적열정이 넘치는 노래소리에 중일군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합친다. 이어 노래는 합창으로 넘어간다. 노래소리 높으니 일손 또한 흥겹다.
수원수만갈매의 실외리가 정경에서 눈썹썹 사이에 큰 실무리가 되어 직포종합작업반에 넘어간다. 줄지어선 직포기들이 각다들었다듯 실무리를 들고 까다한 규격의 타울들을 뽑아낸다.
《또 넘어간다.》

북소리 울린다, 일터가 끓는다

신의를 하라들 공장에서

한뼉부터 제운 타울을 엄색작업반으로 넘기며 직포공들이 제치는 소리이다.
작업장마다 전투소보들이 나뭇다. 새해 전투소보대의 주인공들을 둘러싸고 기마다, 작업반마다 축하의 인사말들이 오고가는데 방송선전차로 새 소식이 알려졌다.
어머니수령님께서 공장을 찾으시었던 40여년전 공장 기술부원도 일한 검감실로 인이 공장에 도착하였다는것이다. 뒤이어 초급당일군이 검감실로와 함께 작업장에 들어선다. 작업장에 박수소리가 터져오른다.
신양의 눈길을 받으며 못 잊

을 추억이 깃들여있는 옛 일터를 돌아보는 로인의 눈가에 뜨거울것이 솟아올라온다. 전세대 로동계급의 그 걱정에서, 뜻깊은 올해의 첫 전투를 고무하며 뜨겁게 잡아주는 마디진 그 손에서 중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어머니수령님의 업적이 깃들여 있는 일터를 더욱 빛내어달라는 간곡한 당부로 가슴깊이 새겨안는다.
맛집은 손과 손을 통해, 서로의 눈썹은 승결을 통해 전세대의 고귀한 투쟁정신이 피죽처럼 이어지는 그 순간 초급당비서 조희영동무가 말한다.
《올해 전투에서 우리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자못 큼니다. 동무들, 자체로 짐겨 정경기를 만들어 어머니수령님으로부터 전국의 모범공장이라는 크나큰 칭찬을 받아안았던 전세대처럼 인민소비품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는 데에 하는 장군님께 꼭 기쁨을 드립니다.》
전투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된다. 방송선전차에서는 축하의 노래소리와 함께 그날 계획한수자들의 이름이 줄지어 울려나온다. 해가 저물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나 이들의 첫날전투승리는 너무도 빨리 온 셈이다. 벌써 그들모두의 가슴마다에선 축하의 꽃송이들이 위훈의 훈장처럼 빛나고있지 않나.

자강도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 창립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자강도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 창립 40돐 기념보고회 지난해 12월 31일에 진행되었다.
박도훈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최기룡 도민위원회 위장, 관계부서 일군들, 사적관일군들과 중일군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자강도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 일군들과 중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나라 전체 인민이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총공격을 벌리며 혁명적대고조의 불꽃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시기에 창립 40돐을 맞는 자강도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의 일군들과 중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사적관에서 주재 59(1970)년 1월 1일에 창립된 후 지난 40년동안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전투로 고양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온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적관의 일군들과 중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발전의 매 시마다 자강도가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사적관으로 더 높이 뛰어넘어 김일성동지께서 량심산일대에 나오시어 우리 인민을 전인항쟁으로 불러일으키신 사적관으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감동투사 안일대에서 혁명투쟁을 벌리신 자로들을 전진적으로 발달관리하여 전진함으로써 사적관을 혁명전투교양의 위대한 거점으로 꾸리었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사적관에서 최근년간 백두산위인들의 대형전투 사진들을 정중히 모시고 인공

혁명사적지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적들을 새로 꾸리였으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진행형식과 내용을 개선하고 현대적인 교양수단들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사적관을 개건하여 전국적인 보훈기를 창조하는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적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이 참가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고 회원발견소를 비롯한 주요대산건설장에서 이종강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노동자중심 수령실사우위정신이 차년차에 해내게 적극 이바지한데 대하여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자강도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의 일군들과 중일군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투의 견결한 옹호자, 적극적인 선전전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희형 자강

도당위원회 비서의 보고에 이어 사적관 관장 박호연, 실장 고영무, 강사 리혜나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혁명적 명도법에 사적관이 걸여온 자랑스런 보훈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으며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백두산3대장군의 사진문헌들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며 혁명사적자료발발사업을 심화시키고 보존관리수단들을 현대화하며 앞선 보존방법들을 하나일대해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강사들이 정치실무적자질과 강의수준을 높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투로 무장시키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농촌을 힘있게 지원

새해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에서...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인민위원회에서는 올해의 첫 농촌지원사업을 틀이 크게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시주변농촌들에 내려간 시의 책임일군들과 시인민위원회는 해당 부서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에게 들어가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는 데에서 알곡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농사치비실태를 구체적으로 알파보다였다. 그리고 시안의 기관,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
1월 2일 김일성평장에서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농업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알곡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 불타는 열의를 안고 새해 첫 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에게 보내준 거름을 실은 수많은 화물자동차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자동차들마다에는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힘있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이날 거름을 실고 주변농촌으로 나간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거름실어내기작업을 적극 다그치면서 새해농사치비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시식료련합기업소, 평양시지구계획위원회, 대동강속...
사업에서 실천적모범을 보이며, 이에 분발해나선 평양시안의 기관,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모두가 떨쳐나 짧은 시간에 농사치비에 필요한 많은 량의 거름을 마련하였다.
농촌지원사업에서는 어머니 당에 드리는 자랑스런 로력적성과를 양고 10월의 대축전성파를 양고 수렴하게 들어 실 한마음이고 떨쳐나선 서생구역과 대동강구역, 순안구역과 선교구역, 수도력계수지도구, 평양시검찰소, 평양...
진지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모범을 보였다.
사동구역, 형제산구역, 강동군을 비롯한 구역, 군안의 기관,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서 더욱 질 좋은 거름을 마련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이날 평양시에서는 1만 5천여의 질 좋은 거름을 수백대의 자동차와 여러가지 수반수단들을 리용하여 주변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글: 최화자 최재남 사진: 신충혁



인간사랑의 화원을 펼치시는 위대한 아버지

언제나 인민을 위하시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은 우리 겨레모두를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사랑의 품, 은혜로운 태양의 품이다. 오늘 남북평화회담은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 팽폭정치와 해발로 이 땅위에 인간사랑의 화원을 펼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과 애도의 정에 넘쳐있다.

《김정일장군님은 인간이 지녀야 할 고결한 성품과 미덕을 완전 무결하게 체현하신 분이시다.》

《천출위인인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인덕정치, 팽폭정치로 이북의 모든 민중에게 행복을 안겨주시는 자애로운 사랑의 화신이다.》

《김정일장군님의 독특한 애민철학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신기한 향기와 덕망으로 일관되어있다. 만민을 한몸에 안아주시는 그의 품은 절세의 위인만이 보여 줄수 있는 위대한 모습이다.》

《김정일장군님은 인간이 지녀야 할 고결한 성품과 미덕을 완전 무결하게 체현하신 분이시다.》

인류공동의 대경사

재우즈베기스탄동포들 경축모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8살과 향일의 녀성영웅 김경숙동지의 탄생 92돐에 즈음하여 지난해 12월 15일 재우즈베기스탄동포들이 경축모임을 가졌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탁월한 선군정치로 주체혁명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출기차기 이끄시며 인민정치사에 특기할 업적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올리시어 세기를 이어 장군부족을 누리도록 해주신 어머니의 불멸의 생애를 가슴뜨겁게 들여다보셨다.

또한 우즈베기스탄주제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끼르키즈스판고통련결성 20돐 기념행사 진행

끼르키즈스판고통련결성 20돐 기념행사가 지난해 12월 22일 비슈케크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끼르키즈스판고통련 일군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박경호 끼르키즈스판고통련 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서는 위대한



건설자리를 찾아가는 날

이른아침부터 온 가정이 설레인다. 오늘은 중구역 교구동 30인민반 박병태동무의 가정에서 새해전투에 펼쳐나선 건설자들을 찾아가는 날이다. 밤새워 한뫼뫼뫼 수를 놓아 어머니가 완성한 《경제선동》완장을 팔에 두르고 거울앞에서 서서 소년단인사도 해보며 좋아이 쫄쫄을 모르는 목란이, 대견하게 손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호호한 웃음이 어민다. 손뽌음을 안겨주는 어머니의 눈가에도 키보드 마음이 먼저 큰 딸에 대한 자랑으로 기쁨이 넘친다. 평양시 10만세대살림집 건설자들앞에서 연주하게 될 노래제목은 딸과 함께 고르던 박병태동무가 딸을 꼭 껴안고 정답이 말한다. 《응성발이인줄 알았더니 우리 목란이도 새해에는 <코미전투원>이 되었구나.》그 말에 응성해진 목란이 어른스레 말한다. 《침단을 향하여 우리도 앞으로!》 글 및 사진 김진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송은 인민경제의 선행편이며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키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2010년 새해의 아침을 알리는 신화나팔소리인듯 기적소리가 울린다. 더 높은 증중성과를 부라하는 목소리를 듣고 2.8적동행년탄광으로, 천성청년탄광으로 낚는듯이 달려가는 《붉은기》 6036호, 6030호... 증중의 기적소리를 힘차게 울려가는 기관사들의 가슴마다에는 하늘에서는 비행사가 제일이지만 땅에서는 기관사가 제일이야 하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기 메아리친다. 새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들을 다시한번 되새겨보며 화력발전소에 보낸 석탄을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중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을 결코 고맙게 생각한다. 모든것을 민중을 위하여 고쳐주실까 하고 민중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뜻이다. 민중에게 영리한 봄을 주고 그늘 없이 햇빛만을 주는 위대한 사랑의 정치, 김정일장군님의 인덕 정치가 못건더게 그려줘다.》

《가슴속진정을 담아 내놓는 이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인덕의 화신인 경애하는 장군님을 가까이 느끼고 따르는 남쪽의 민심이 그대로 어려웠다. 인민을 위해 배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 그것은 인민을 이 세상의 제일로 여기고 아끼시는 그이의 숭고한 인민관이 어린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믿음이다. 정책과 로선을 하나 세우고 그 앞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부하도록 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는 이 땅위에 인간사랑의 위대한 진실을 날려 하였다. 령도자의 사상과 위업을 받든데서 참된 삶의 보람을 찾고 절해고도에서도 장군님만을 그리며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결한 사상감정과 투쟁기풍은 바로 혁명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불타고 뜨거워진 사랑과 믿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령도자는 인민을 천자식처럼 사랑하고 보살피며 인민을 령도자를 친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여기에 필승불패하는 우리 조국의 무한대 한 힘의 원천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인간애, 동지애가 안아온 우리 공화국의 빛나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남북평화회담은 민족의 어머니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신뢰의 정을 더욱 깊이 새겨안고있다. 한 종교인은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김정일장군님의 인덕 정치가 못건더게 그려줘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회고록 《새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혁명사람들은 자기에게 고향을 함복명승이라고 자랑한다.》

《혁명명승은 이름높은 회령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있는 고장으로서 《회령 3미》, 《회령 8경》을 비롯한 많은 자랑을 안고있다. 그 가운데서도 《회령 3미》는 자랑중의 자랑으로 일러오고있다. 《회령 3미》는 회령의 여성, 백살수와 흙, 이 세가지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말이다. 회령의 남성기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한칸 마련할수 없어 안타까와하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북에서는 국가가 집을 지어 로동자, 농민 할것없이 모든 민중에게 돈 한호 받지 않고 보장해준다고 한다. 저 백두산기슭에도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건설되어 새집들이 있었다니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이북민중이 누리려는 행복은 다 민중을 하느니라 하시며 사랑의 정치를 펴시는 김정일장군님의 덕분이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우리 이날 민중들도 김정일장군님께서 베푸시는 인덕정치를 받게 되게 된다면 원이 없었다.》

《남쪽의 한 로동자는 《해빛과 사랑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이렇게 썼다. 《인간의 마음에 봄을 주는 해 빛, 그것은 곧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인간에게 희망을 주고 포부를 주며 밝은 미래를 준다. 차고도 어두운 이 땅에 살고있는 이남민중을 포근히 안아주는 그 사랑, 그 해빛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남북평화회담의 봄은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의 정치가 펼쳐진 이북에서 오고있다.》

이처럼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에 안겨 참된 행복을 누리려 하는 것이 남북평화회담의 가슴속에서 간직된 절절한 열망이다. 그 열망을 안고 남조선인민들은 오늘날 통일애국의 한걸음씩을 굳게 걸어가고있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부멸의 대강에 매혹되어서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어느날 집에 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은 우리 겨레모두를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사랑의 품, 은혜로운 태양의 품이다. 오늘 남북평화회담은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 팽폭정치와 해발로 이 땅위에 인간사랑의 화원을 펼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과 애도의 정에 넘쳐있다.》

《김정일장군님은 인간이 지녀야 할 고결한 성품과 미덕을 완전 무결하게 체현하신 분이시다.》

《천출위인인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인덕정치, 팽폭정치로 이북의 모든 민중에게 행복을 안겨주시는 자애로운 사랑의 화신이다.》

《김정일장군님의 독특한 애민철학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신기한 향기와 덕망으로 일관되어있다. 만민을 한몸에 안아주시는 그의 품은 절세의 위인만이 보여 줄수 있는 위대한 모습이다.》

《김정일장군님은 인간이 지녀야 할 고결한 성품과 미덕을 완전 무결하게 체현하신 분이시다.》

《김정일장군님의 독특한 애민철학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신기한 향기와 덕망으로 일관되어있다. 만민을 한몸에 안아주시는 그의 품은 절세의 위인만이 보여 줄수 있는 위대한 모습이다.》

《김정일장군님의 독특한 애민철학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신기한 향기와 덕망으로 일관되어있다. 만민을 한몸에 안아주시는 그의 품은 절세의 위인만이 보여 줄수 있는 위대한 모습이다.》

《김정일장군님의 독특한 애민철학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신기한 향기와 덕망으로 일관되어있다. 만민을 한몸에 안아주시는 그의 품은 절세의 위인만이 보여 줄수 있는 위대한 모습이다.》

《김정일장군님의 독특한 애민철학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신기한 향기와 덕망으로 일관되어있다. 만민을 한몸에 안아주시는 그의 품은 절세의 위인만이 보여 줄수 있는 위대한 모습이다.》

《김정일장군님의 독특한 애민철학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신기한 향기와 덕망으로 일관되어있다. 만민을 한몸에 안아주시는 그의 품은 절세의 위인만이 보여 줄수 있는 위대한 모습이다.》

《김정일장군님의 독특한 애민철학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신기한 향기와 덕망으로 일관되어있다. 만민을 한몸에 안아주시는 그의 품은 절세의 위인만이 보여 줄수 있는 위대한 모습이다.》

《김정일장군님의 독특한 애민철학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신기한 향기와 덕망으로 일관되어있다. 만민을 한몸에 안아주시는 그의 품은 절세의 위인만이 보여 줄수 있는 위대한 모습이다.》

《김정일장군님의 독특한 애민철학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신기한 향기와 덕망으로 일관되어있다. 만민을 한몸에 안아주시는 그의 품은 절세의 위인만이 보여 줄수 있는 위대한 모습이다.》

《김정일장군님의 독특한 애민철학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신기한 향기와 덕망으로 일관되어있다. 만민을 한몸에 안아주시는 그의 품은 절세의 위인만이 보여 줄수 있는 위대한 모습이다.》

《김정일장군님의 독특한 애민철학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신기한 향기와 덕망으로 일관되어있다. 만민을 한몸에 안아주시는 그의 품은 절세의 위인만이 보여 줄수 있는 위대한 모습이다.》

《김정일장군님의 독특한 애민철학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신기한 향기와 덕망으로 일관되어있다. 만민을 한몸에 안아주시는 그의 품은 절세의 위인만이 보여 줄수 있는 위대한 모습이다.》

《김정일장군님의 독특한 애민철학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신기한 향기와 덕망으로 일관되어있다. 만민을 한몸에 안아주시는 그의 품은 절세의 위인만이 보여 줄수 있는 위대한 모습이다.》

《김정일장군님의 독특한 애민철학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신기한 향기와 덕망으로 일관되어있다. 만민을 한몸에 안아주시는 그의 품은 절세의 위인만이 보여 줄수 있는 위대한 모습이다.》

조국통일기구

부멸의 대강에 매혹되어

조선의 한 지식인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 대단결사상을 되새길수록 자신의 위대성과 역센 통일외치의 머리가 숙여진다 하셔서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터놓았다. 《오늘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야 할 숭고한 임무가 우리 겨레앞에 나서고있

밀고 파르는 마음

통일운동의 진두에는 김일성주석님의 천품속에서 그대로 이어받은 고결한 사상론리가 서있고 탁월한 사상론리가 서있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 서있어 민족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세계를 내치고 이 세상이 누구도 따를수 없는 슬기와 예지, 문무를 겸비하신 김정일장군님을 온 겨레가 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따르고있다. 우리모두 영명하신 김정일장군님을 온전히 믿고 그의 민족대단결 사상과 뜻을 높이 받들고 따르자.》

드림없는 신념, 확고한 의지

서울대학교의 한 학생은 《민족의 령수와 조국통일》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령도를 받들어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굳이 앞당겨줄 자기의 굳센 신념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회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통일은 확정적이다.》

《오늘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야 할 숭고한 임무가 우리 겨레앞에 나서고있

《오늘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야 할 숭고한 임무가 우리 겨레앞에 나서고있

《오늘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야 할 숭고한 임무가 우리 겨레앞에 나서고있

《오늘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야 할 숭고한 임무가 우리 겨레앞에 나서고있

《오늘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야 할 숭고한 임무가 우리 겨레앞에 나서고있

《오늘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야 할 숭고한 임무가 우리 겨레앞에 나서고있

《오늘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야 할 숭고한 임무가 우리 겨레앞에 나서고있

《오늘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야 할 숭고한 임무가 우리 겨레앞에 나서고있

《오늘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야 할 숭고한 임무가 우리 겨레앞에 나서고있

《오늘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야 할 숭고한 임무가 우리 겨레앞에 나서고있

《오늘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야 할 숭고한 임무가 우리 겨레앞에 나서고있

《오늘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야 할 숭고한 임무가 우리 겨레앞에 나서고있

《오늘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야 할 숭고한 임무가 우리 겨레앞에 나서고있

우리의 민족의 자랑

우리 민족의 자랑 — 《회령 3미》

회령의 백살수미는 아름다운 회령, 유명한 백살수미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듯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회령 3미》는 이따 여성들의 미모와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조국통일기구

조국통일기구

조국통일기구

조국통일기구

조국통일기구

조국통일기구

조국통일기구

조국통일기구

조국통일기구

조국통일기구

조국통일기구

조국통일기구

조국통일기구

조국통일기구

조국통일기구

